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고요함이 가득하여라



님이 오시는가
내가 가고 있는가

어느새 님은 내가 되고
나는 님이 되었네

슬픔은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졌네

옳고 그름도 비켜서고
죽고 살고도 상관할 바 아니네

햇살이 어둠을 업고
고요함이 가득하네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머리 장식이 뿔처럼 생겼고, 손에는 북을 들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샤먼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편 다리 달린 동그라미는 무엇일까? 태양일까? 달일까? 달은 대체로 초승달이나 반달 모양으로 그려서 쉽게 구분된다. 이 그림은 태양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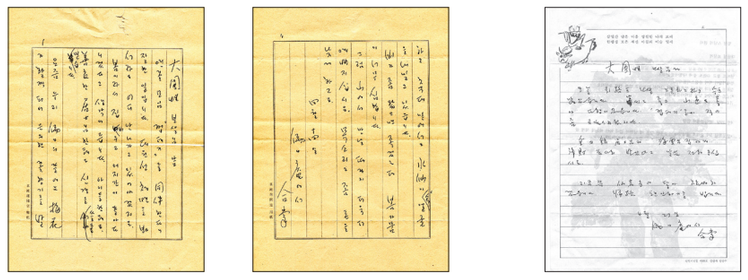
태양이라 하더라도 특이하다. 태양의 빛살을 표현하지 않았고, 태양에 두 다리가 있다. 다리 달린 태양이 날마다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을 것이다. 태양은 태양신이 되었다.

샤먼의 기도는 어떠했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들어주는 이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기도하는 나도 없고, 기도의 대상도 없어지면서, 둘이 하나 되어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녹여 안은 고요함이 가득했을 것이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⑲ 법정 스님 2

매화와 수선화 같았던 수행자



〈서신 1〉

연꽃모임 껍데기들 동반한다니 잘 한 일입니다. 대원성체면을 생각하더라도 어디 안 나가고 있어야겠지요. 봄이라서 집 비우고 어지간히 돌아다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도 선량한 거사님한테도 신경을 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불일의 뜰에는 매화가 활짝 피어 은은한 꽃향기를 발하고 축대 밑에서도 수선이 쏙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봄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그럼 산에서 만날 때까지 더욱 더 예뻐지십시오. 목소리도 좀 톤을 낮게 하고요.

– 4월 14일 불일암에서 합장

〈서신 2〉

오늘 引路王(인로왕) 보살 노릇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山色(산색)도 좋아 다행이었습니다. 껍데기들이 적어 유감스러웠지만. 김두현 거사님과 해운대 집에게 淨財(정재) 감사히 받았다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지금쯤 선암사에 닿아 참배하겠습니다. 귀로 편안하기를 빕니다.

– 4월 29일 불일암에서 합장

어느 해, 연꽃모임이 3사 순례를 가기로 했을 때였다. 부부동반으로 간다고 스님께 미리 소식을 드렸더니 너무나 잘 한 일이라며 반기셨다. 스님은 늘 거사불자가 적은 것을 걱정하셨다. 그래서 평소 보살들에게 남편과 함께하는 신행생활을 강조하셨고, 거사불자가 많아지기를 바라셨다. 그래야 좀 더 불교의 저변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불교를 생각하시면서도 각자의 집안일도 강조하셨다. 내가 워낙 여기저기 쉼 없이 돌아다닐 때라 조금 걱정이 되셨던 것 같다. 남편과 아이들 잘 챙기라는 말씀에 마음이 훈훈했던 기억이 난다.

연꽃모임이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순례를 가거나 먼 곳의 법회에 갈 때에는 많은 회원들이 움직여야 했다. 많을 땐 버스 2대가 움직였다.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자니 자연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스님은 그런 내 모습을 보실 때마다 목소리를 조금만 낮추라고 당부하셨다. 왜 아닐까. 고요함에 익숙하신 스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이 쓰이고 일러주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다.

'서신 2'는 우리(연꽃모임)가 불일암에 다녀간 후에 쓰신 편지다. 부부동반으로 가기는 했지만 남편들의 참여가 생각보다는 적었다. 스님이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 편지에서 아쉬운 마음이 보인다.

매화가 은은한 꽃향기를 내고 축대 밑에서는 수선이 얼굴을 내밀던 불일암. 매화 같고 수선 같았던 스님. 지금도 봄마다 불일암에는 매화가 은은하고 수선이 축대를 바라보겠지만 스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래도 다시 봄이 오는 날에는 불일암에 한 번 다녀오고 싶다. 스님은 계시지 않겠지만 매화 향기 속에서, 수선의 얼굴 속에서 왠지 스님의 모습을 뵐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한참 기다려야겠지만 봄이 기다려진다.



불일암을 찾은 연꽃모임 거사들과 함께한 법정 스님(중앙).



| 공모주제 - 자유

-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 자비, 정진
- 내가 바라본 사찰, 내가 경험한 수행
- 나의 스승, 나의 도반, 나의 신도
- 사찰행사, 포교현장 등

| 응모기간

- 응모기간 : 9월 7일(월) ~ 11월 30일(금)
- 심사발표 : 12월 말 경

| 영상규격

- 휴대폰으로 촬영한 3분 미만의 해상도 1920*1080, 1280*720 동영상

※ 1인당 최대 3작품 응모가능
편집본인 경우 저작권이 없는 무료음원, 무료폰트만 사용가능

[NOTICE]

-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하고 입상에서 탈락한 작품(파일)은 폐기함.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영상이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도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1인에 대해 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상금이 많은 분야만 시상함.
-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하여 동영상 파일과 함께 e-mail으로 동영상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e-mail : btngongmo@btn.co.kr

| 시 상

BTN 회장상 (1명)	상금 1,000,000원
BTN 사장상 (1명)	상금 1,000,000원
금상 (1명)	상금 500,000원
은상 (2명)	상금 300,000원
동상 (2명)	상금 200,000원
가작 (3명)	상금 100,000원

※ 당선작은 자사채널(TV, VOD,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예정

| 심사기준

- 내부 심사로 주제 적합성, 창의성, 공감성, 활용성 등 종합 심사

| 공모대상

- 국내외 사찰 거주하고 있는 모든 스님들 (외국인 스님 포함)

| 문 의

- 스마트폰 동영상 공모전 운영팀 : 02-3270-3430

[수상 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